

고1 학생 75% “고교학점제 불만족”

종로학원, 고1 학생 470명 대상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문조사

76.6% “진로 탐색 도움 안 돼”
입시 유불리 중심… 불만도 ↑

올해 첫 학기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1 학생 10명 중 7명이 제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적성 탐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6%에 달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은 지난 달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고1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1학기 경험에 대해 ‘안 좋다’(40.4%)와 ‘매우 안 좋다’(35.1%) 등 부정 평가가 75.5%에 달했으며, ‘좋다’(3.2%)와 ‘매우 좋다’(1.1%) 등 긍정 평가는 4.3%에 불과했다.

과목 선택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67.0%로, ‘그렇다’(1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교학점제가 진로·적성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76.6%가 ‘아니다’(37.2%) 또는 ‘매우 아니다’(39.4%)라고 답했다.

학교생활 측면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뚜렷했다. ‘학교 적응 및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다’가 48.9%, ‘보통’이 45.7%였으며 ‘긍정적이다’는 5.3%에 그쳤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울산 효정고등학교 창업동아리 상생 스타트업 소속 학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스마트 지팡이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과목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대입 유불리’(68.1%)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진로 및 적성(27.7%) ▲친구(2.1%) ▲선생님 조언(1.1%) 순이었다. 학생 절반 이상(56.4%)이 고교학점제 관련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상담처는 ‘학원 또는 컨설팅 업체’(60.4%)가 ‘학교 선생님’(26.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향후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72.3%) 의견이 가장 많았고 ▲축소(13.8%) ▲현행 유지(6.4%) ▲확대(5.3%) 순이었다. 또 77.7%는 “대학 또는 고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충분한 정보나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해 현장의 혼란을 반영했다.

학점제 이후 학교 내신 불리함을 느낀 학생의 경우, 향후 대입 전략을 ‘수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여전히 내신 중심’(26.6%), ‘고교학점제 집중’(13.8%)이 뒤를 이었다. 내신 불리함을 고교학점제로 만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3.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종로학원은 “현재 고1 학생들의 내신 상위권은 학점제 일반·진로선택 과목에 집중되는 반면,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은 수능 등 다른 전략에 치중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점제가 취지와 달리 진로 탐색보다 입시 유불리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제도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서 2000억 투자유치

‘트라이 에브리싱’ 역대최고 실적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세계 8위에 오른 서울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에서 방문객 8578명, 총 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서울은 지난 6월 글로벌 창업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 ‘2025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세계 8위, 아시아 2위로 선정돼 2년 연속 글로벌 톱10에 진입했다. 자금 조달 분야 세계 5위, 지식축적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은 트라이 에브리싱에는 875개 스타트업(해외 87개)과 337개 투자기관(해외 35개)이 참여해 지난 해보다 각각 1.8배, 1.4배 증가했다. 전시 부스 120개 중 71개가 스타트업(Meet-up, 밋업) 부스로 운영됐으며, AI·바이오·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밋업 부스를 15개에서 41개로 확대해 총 541건의 투자 미팅을 진행했다. ‘밋업’ 현장에서 1771억원(국내 638억원, 해외 1133억원) 규모의 투자 검토



서울시가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를 통해 8578명의 방문객, 총 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액 등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사진은 행사장 전경. /서울시

가 이뤄졌고, 연말까지 2000억원 이상 투자유치가 예상된다. 해외자본 비중은 64%로 서울의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또한 글로벌 VC와 대기업 참여도 확대됐다. 9개국 12개 해외기관이 참여했고, 삼성물산·KT·한국마이크로소프트·신한금융그룹 등 국내 대기업 4곳이 13개 스타트업과 기술협력·개념검증(PoC)을 진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총 1038개 스타트업과 202개 대·중견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3810건의 투자유치 사례를 만들었으며, 트라이 에브리싱을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전국 첫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

서울시교육청-서울대 ‘맞손’
초·중학교 교사 20명 참여
실제 난산증 학생 중재 병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서울 대학교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학 학습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산증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서울대에서 운영된다.

‘난산증’은 정상적인 지능과 충분한 학습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감각과 수 개념 형성, 기초 연산 기억, 연산 절차 이해, 수학적 추론 등에서 지

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난산증 학생 지원 전문교사는 이러한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중재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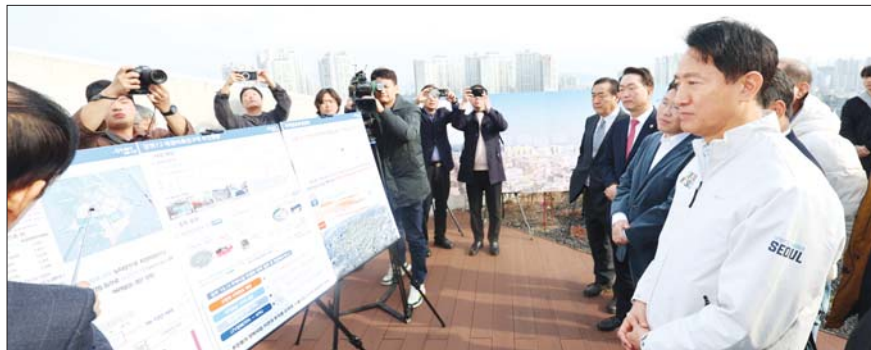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난산증 고위험군 학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재 모델을 연구해왔다. 시범 운영 결과, 난산증 학생에게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교원 양성이 핵심 과제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양성과정에는 소속 학교에 난산증 의심 학생이 있는 초·중학교 교사 20명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난산증 학생의 특성 이해 ▲진단 및 학생별 맞춤 전략 수립 등 이론 교육을 기반으로, 실제 학생 중재 활동을 병행하는 실천 중심의 연수로 구성된다. 특히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학점으로 인

정받는 ‘마이크로디그리형’ 과정으로 운영돼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학문적 성취를 동시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난산증 학생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현장 교사의 전문성 강화 ▲마이크로디그리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원 연수 모델 개발 등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난산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증거 기반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공교육의 책무성과 기초학력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생 대상 지원뿐 아니라 학부모 연수와 상담도 병행해 가정·학교·교육청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난산증 학생의 학습 환경을 학교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건강누림센터를 방문해 장위13 재정비촉진지구 추진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시스

‘장위13구역’ 10년 만에 정비 재추진

사업 재정비 시 총 3.3만호 공급 전망
오세훈 시장 “잃어버린 10년 찾을 것”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상향이 상존하고 있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 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 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약 6000호)까지 사업에 들어가면 장위 재촉진지구에서는 총 3만3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장위13구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현재 ‘장위13-1/2구역’으로 분리돼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늦은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

제된 이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위13-1/2구역’은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신속통합 기획 2.0이 시작부터 종합 적용되는 대표적인 현상이 된다.

특히 재정비 사업에서는 시간이 곧 사업성인 만큼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반적인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장위13-1/2구역’ 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을 통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000호(해제 후 재추진 구역 포함)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 온 장위13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사립초등학교 38곳, 신입생 원서접수

‘사립초 입학포털’ 통해 진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6학년도 서울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7일부터 12일까지 ‘사립초 입학포털’을 통해 진행한다. 한 학생이 최대 3개 학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엔 처음 도입되는 ‘사립초 입학포털’은 서울 사립초연합회가 개발·운영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원서 접수부터 추천·등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입학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원서접수는 7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4시 30분까지 24시간 진행되며, 지원자는 최대 3개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추천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되고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